

1950~1960년대 북한 산업연수생의 북경 연수활동

동지에(董潔, 북경대학교)

북경시는 중국이 북한의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인 39개 도시 중의 하나로, 1950년대부터 북한의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기 시작하였다. 북경시는 북한 산업연수생의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산업연수생 프로그램을 일종의 정치적 임무로 간주하였고,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들의 기술학습이나 일상생활 방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우대를 해주었다. 그러나 신기술이 유출되어 소극적인 외교 상태에 처해졌을 경우, 북경시는 정치를 우선으로 삼고 북·중 양국의 관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삼아 북한에 관대하게 신기술을 공개하였다. 북한 산업연수생은 북·중 양국의 정치적 목표의 일치성에 기인하고 있으니, 그것이 중지된 원인은 바로 북·중 양국의 정치적 이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연수생 프로젝트는 북·중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북·중 경제관계가 북·중 정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북·중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북한, 중국, 연수생, 대북정책, 북·중관계

1. 서론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간에 산업연수생과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상대 국가에서 연수받도록 한 사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 간에 경제와 기술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식이었다. 1950년대 초 양국은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산업연수생을 중국 각지의 공장·광산·기업 등에서 연수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관련된 자료가 미공개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간의 산업연수생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가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차적으로 중국 각 지역의 당안관(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북경시 당안관·상해시 당안관·중국 외교부 당안관 등에서 미공개된 관련 당안사료를 일부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일보』 등의 공간 자료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 산업연수생들의 중국 연수활동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 및 냉전시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경제협력관계의 실태를 고찰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확보한 자료 중에서도, 특히 북한 산업연수생의 북경 연수활동과 관련된 사료의 검토를 토대로 1950년 초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실시된 북한연수생의 중국파견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개황을 소개한 이후 이들의 북경에서의 연수활동·일상생활·처우 문제·기밀유지 문제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은 북·중 양국의 경제기술 협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북한 산업연수생의 개황

1950년부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중국 정부는 북한·베트남·알바니아·쿠바·몽골·알제리·캄보디아·남예멘 등으로부터 총 1만 7,143명의 연수생을 받았다. 그중 4,139명은 공장 프로젝트 연수생이었고, 나머지 1만 3,004명은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 연수생이었다.¹⁾ 이 중에서 북한의 경우, 처음 중국에 온 북한연수생은 전쟁고아들이었다.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에 1만여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을 받아들여 부양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중국과 북한 정부는 약 2,500명의 전쟁고아들을 계속 체류시켜 생산기술을 교육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들이 중국에서 교육받은 북한의 ‘제1기’ 연수생이자, 중국이 최초로 받아들인 외국인 연수생이었던 셈이다.²⁾

한국전쟁 이후 북한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폐허

1) 1953년 이전의 연수생 숫자는 통계자료가 없어 수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國務院對外經濟聯絡總局, 『外國實習生工作初步總結』(1963.8), 北京市檔案館, 102-001-00307, pp.590~617.

2) 石林 主編, 『當代中國的對外經濟合作』(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pp.241~242.

가 된 경제를 신속히 재건하려는 북한 정부를 돕기 위해서 중국은 대대적인 경제적 원조를 결정하였다. 1953년 11월, 김일성이 직접 북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북·중 양국정부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북·중 무역의 전반적인 사안들, 철도운송 및 자재공급에 관한 문제, ‘북·중 경제문화협정’의 체결, 연수생의 파견, 기술원조 문제, 북·중 합영회사 설립과 운영 방법, 계획경제 문제, 북·중 공용전력의 개발 및 사용, 중국의 대북한 원조를 통한 철로 복구와 발전, 기술자와 난민 문제, 북·중 화폐교환에 관한 환율 협상, 화물운송비 삭감, 면포 및 석탄의 공급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³⁾ 마침내 11월 23일, 북·중 양국 정부대표단은 「북·중 양국정부 경제 및 문화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을 통해서 중국정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 중국정부가 북한에 원조한 모든 물자와 경비를 면제하고” 또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동안 인민폐 8조 위안을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정부에 무상으로 원조하여 전후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약속하였다.⁴⁾

양국은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기술자와 기사(산업 엔지니어)를 중국의 일부 생산부문에 파견해 연수받도록 하며, 동시에 중국의 기술자와 기사를 북한의 일부 생산부문에 파견해 업무 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3) 中國外交部檔案館, 204-00003-01, p.32, pp.35~39.

4) 당시 옛 위안화 8조 위안은 지금 위안화로 환산하면 8억 위안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제5차 회의가 통과한 「새 위안화 발행과 현행 위안화 회수에 관한 명령」에 따라 1955년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 위안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새 화폐 1위안은 옛 화폐 만 위안과 같다.

가 파견한 학생들이 중국 각 대학과 각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동의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여, 북·중 간의 경제기술 협력관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⁵⁾ 이 협정에 의거하여 중국은 이후 1만 명에 달하는 북한연수생을 받아들여 각종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였다.⁶⁾

1953년 11월 조인된 「북·중 기술원조 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연수생 2,962명이 1954년 하반기 중국에 도착했고, 이들은 중국의 39개 도시 224개 공장과 광산에서 연수생활을 시작하였다.⁷⁾ 이 중에도 상해시의 북한연수생은 269명이었는데, 이들은 경공업과 일용품 생산기업에 배치되었다.⁸⁾ 1956년 6월 북한은 2차로 3,000명의 산업 연수생을 중국에 파견하였다.⁹⁾ 이들은 주로 북한의 노동자, 전역한 군인 또는 중국에서 생활한 전쟁고아 가운데에서 선발되었으며, 중국 전역의 공장과 광산에 배치되었다.¹⁰⁾ 1957년 12월 31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중 과학기술 협력협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1958년 11월 북·중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북·중 양국의 상호 연수생 파견 계획의 수립 및 연수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¹¹⁾

5)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998), pp.925~926.

6) 石林 主編, 『當代中國的對外經濟合作』, p.26.

7) 『人民日報』, 1955년 11월 21일(3판).

8) 상해로 간 269명의 북한연수생은 국영 또는 공사합영기업에는 39명이, 사기업에 222명이 배치되었다. 「中共上海市委工業生產委員會關於朝鮮實習生來上海市實習有關問題的請示報告」(1954.6.5), 上海市檔案館, A38-2-352, pp.1~4.

9) 中華人民共和國地方工業部, 「請準備接待朝鮮實習生的通知」(1956.6.30), 北京市檔案館, 017-001-00664, pp.569~571.

10) 그중 509명의 북한연수생이 심양(瀋陽)에서 연수를 받았다. 『人民日報』, 1956년 8월 25일(2판).

11) 「中朝科學技術合作委員會章程和執行決議的共同條件」(1958.11.18), 上海市檔案館,

1960년에 이르러 김일성은 6월 3일 북한주재 중국대사 차오샤오광(喬曉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경공업이 낙후되어 제품의 품질도 낮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초빙하는 동시에 북한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중국으로 연수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66명의 중국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초빙하는 한편, 184명의 북한연수생을 중국에 파견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요구는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¹²⁾ 그 해 10월 18일 북경에서 체결된 제3차 『북·중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의정서』의 결정에 의해서 중국 경공업부는 26개 프로젝트에서 76명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중국에서 연수시키고, 23개 항목의 기술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서 45~48명의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키로 결정하였다.¹³⁾

사실 1960년대 초반에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외교활동은 제3세계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의 중국 산업연수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중국 국무원 대외연락총국 통계에 따르면, 1963년 하반기에만 알바니아·쿠바·북한·베트남·네팔 등 5개 국가의 연수생 378명이 중국의 20여 개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연수를 받았고, 이 중에 쿠바·북한·베트남의 연수생 203명이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¹⁴⁾

B163-2-66, pp.1~9.

- 12) 國家科學技術委員會報國務院外辦, 陳毅, 聶榮臻副總理, 『請批示朝鮮聘請我國技術人員和派遣實習生事(科合武字 第432號)』(1960.6.30), 北京市檔案館, 002-012-00243, pp.2765~2766.
- 13) 『輕工部請執行中朝科學技術合作委員會第三屆會議決議的函(附項目清單)』(1960.11.1), 上海市檔案館, B163-2-1033, pp.2~8.
- 14) 國務院對外經濟聯絡總局, 『外國實習生工作初步總結』, pp.590~617.

그런데 1966년에 들어서면서 북·중 관계가 공개적인 갈등관계로 악화되었다. 1967년부터는 북한과 중국과의 갈등관계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월부터 문화혁명을 주도하던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난하였고, “북한에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홍위병의 북한 비판에 대응해서 북한 정부는 1967년 1월 26일 해명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홍위병이 ‘정변’의 진원지로 허위 유포한 군부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¹⁵⁾ 양국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러한 북·중 간의 정치적 변수는 북한연수생의 파견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7년 5월 10일 중국 국가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북한연수생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였다. “북한 측이 연수생의 중국입국 시기를 자주 늦춰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중국에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리고 이 일시 중단의 결정은 곧이어 북한연수생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중단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무원 제1기계공업부는 “북한에 턴키 베이스(turn key base) 방식으로 원조하기로 한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 혹은 미체결된 북한연수생의 교육 준비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확정된 연수교육을 시키는 관계자들은 잠시 다른 작업에 배치하게끔 하였고, 현재 진행되는 기술연수 교육은 현지상황에 따라 계속 추진하되 끝마친 다음에는 일 단락 짓는다”고 결정하였다.¹⁶⁾

한국전쟁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북한연수생 연수프로그램은 1967

15) 『로동신문』, 1967년 1월 27일.

16) 『第一機械工業部關於暫停接待朝鮮實習生準備工作的通知』(1967.5.31), 上海市檔案館, B112-5-132, pp.24~25.

년 5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에서 대다수의 북한연수생들은 중국의 각 교육기관과 공장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생활하였다.¹⁷⁾ 이들은 철강제련·단조(鐵造)·조선·건축·철로부설·비료생산·방직·염색·인쇄·가죽제작·목재가공·캔 생산·담배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고, 귀국 후에는 북한의 관련 경제건설 관련 부문에서 크게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⁸⁾ 북한의 기계공업상 최재우(崔載羽)도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여러 형제국가에 파견한 유학생과 연수생이 귀국 후 우리의 대학과 전문학교, 그리고 여러 공장의 기술학교에서 많은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각종 현대적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 산업연수생들이 중국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역량과 그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¹⁹⁾

3. 북한연수생의 연수내용 및 생활모습

북한의 산업연수생은 중국 전역에 배치되어 산업연수를 받았다. 그 중 북경은 북한연수생 프로그램 실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연수교육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는 북경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북한연수생들의 중국생활의 단면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북경시 최초의 북한연수생은 강사식(康士植)과

17) 國務院對外經濟聯絡總局, 『外國實習生工作初步總結』, pp.590~617; 『北京市實習生工作中的幾個問題』(1964.8), 北京市檔案館, 102-001-00307, pp.571~586.

18) 『人民日報』, 1957년 1월 25일(5판).

19) 『人民日報』, 1959년 6월 3일(5판).

김원규(金元圭)다. 1951년 12월 6일 북경시 인민정부 공상국(工商局)에 의해서 강사식은 북경경화고무공장(北京京華橡膠廠)에 배치되었고, 김원규는 북경공급판매협력총사(北京供銷合作總社) 칫솔공장에서 연수하였다.²⁰⁾

강사식은 신화고무공장에 도착한 이후 12월 12일부터 연수를 개시하였다. 그는 숙련된 기사의 지도 아래서 고무신 제작 기술을 습득하였다.²¹⁾ 1952년 2월부터 그는 ‘분무기 고무땀개’ 제조 기술을 연수받기 시작하였고, 연수기간에 공장노동자조직위원회(工會組織委員會) 노동자들과 숙식을 함께 했다. 식사는 한 달에 좁쌀 200kg이 기준이었는데, 아침은 국수 한 그릇, 점심과 저녁은 반찬 하나 국 한 그릇·만두·쌀밥이었다. 연수기간에 강사식의 부인과 자녀가 두 차례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가족들은 한 달 반 정도 북경에 머물렀다. 강사식 가족들이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지출한 숙식비, 교통비 등 130만 위안의 경비는 연수를 담당할 공장에서 전액 부담하였다.²²⁾

김원규의 경우, 칫솔공장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 칫솔과 칫솔모

20) 강사식은 1952년 2월24일에 북경 경화고무공장에서 북경 신화고무공장으로 옮겼다. 『北京京華橡膠廠關於朝鮮工人康士植同志學習生活情況總結』(1952.1.19),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18; 北京供銷合作總社牙刷工廠報北京工商局, 『關於朝鮮工人金元圭同志學習和生活情況的報告』(1952.3.18),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p.16~17.

21) 『北京京華橡膠廠關於朝鮮工人康士植同志學習生活情況總結』(1952.1.19),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18.

22) 1951년 북경시 물가기준에 따르면, 1만 위안으로 밀가루 6근 또는 쌀 8근 또는 소금 10근 또는 돼지고기 2근 또는 소고기 2근 또는 면포 3척 이상을 살 수 있었다. 당시 1만 위안은 1990년대 위안화 약 13위안에 상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陳明遠, 『知識份子與人民幣時代』(上海: 文匯出版社, 2006), p.281 참조. 『北京新華橡膠廠關於朝鮮工人康士植同志學習生活情況總結』(1952.3.2),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p.19~20, p.33.

제조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였고, 각 생산과정의 생산도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²³⁾ 연수를 담당한 공장은 김원규가 빠른 시간 안에 북경생활에 적응하고, 공장의 중국인 노동자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히 그의 건강을 위해 중국의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식사를 제공하였다.²⁴⁾

한국전쟁 기간 북경에서 산업기술 연수를 받던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매우 작았고, 또 분산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특별 규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내에서 풍미하던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북·중 우호’ 분위기 속에서 중국정부는 이들의 관리와 대우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 1952년 말,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이하 ‘중재위’)는 연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에 “북한 동지들이 중국에서 연수하는 정치적 의의를 관철시켜야 한다. 항미원조의 국제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며, 그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 공장 측은 청년단·노조와 함께 연수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²⁵⁾ 1953년 1월 7일 중재위는 북한연수생 사업이 ‘항미원조’의 구체적인 일환임을 강조하였다.²⁶⁾

1953년 1월 22일 북한연수생 16명이 북경시 화학시제연구소에서

23) 北京供銷合作總社牙刷工廠報北京工商局, 『關於朝鮮工人金元圭同志學習和生活情況的報告』(1952.3.18),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p.16~17.

24) 北京供銷合作總社牙刷工廠報北京工商局, 『關於朝鮮工人金元圭同志學習和生活情況的報告』(1952.4.2), 北京市檔案館, 022-010-00403, pp.12~15.

25) 中國輕工業部向北京市企業公司轉發中財委, 『關於朝鮮友人來我國實習的通知』(1953.2), 北京市檔案館, 016-001-00009, pp.438~439.

26) 『關於朝鮮實習生在實習中應注意事項的通知(財經秘密字13號通知)』(1953.1.7),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1~4.

기술연수를 시작했고, 3월에 또다시 2명이 추가되어 18명의 북한연수생이 연수를 받았다.²⁷⁾ 이들은 연구소의 유기화학 공장·무기화학 공장·삼산(三酸) 공장·검사실·연구실 등에 배치되었다.²⁸⁾ 북한연수생들은 기술 습득 속도에 비하면, 이론적 지식의 습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소는 전문가를 할당하여 기초 화학지식의 교육도 병행하였다.²⁹⁾ 북한연수생들의 학습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기초 화학지식과 생산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습득하였다.³⁰⁾ 동시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연수생들은 실무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도구·원자재 공급원·제품 설계·이윤 계산 등 공장운영에 관해서도 연수를 받았다.³¹⁾ 1년의 연수기간이 끝나갈 즈음, 대부분의 북한연수생들은 스스로 실무적인 실습과 조작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화학이론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다.³²⁾ 또한 화학시제연구소는 북한연수생들의 요구로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전문교수를 초

27) 북경시 화학시제 연구소는 유명한 화학자 가오총시(高崇熙)가 1950년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북경 신화화학 시제소이라고 불렸다. 이후 1953년 북경 화학시제 연구소로 개명하였다. 1956년 연이어 39개 중소형 화학공장을 병합해 북경 화학시제장이 되었고 1958년 북경 화학공장으로 개명되어 중국 최대 화학시제 공장 중 하나가 되었다.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三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1953.4.1),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41~45;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四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1953.5.9),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16, pp.21~22.

28) ‘삼산’은 질산, 유산, 염산을 지칭한다.

29)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朝鮮同志一月來實習簡單情況』(1953.2.26),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48~53.

30)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八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1953.9.12),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16, pp.30~33.

31)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九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1953.10.16),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37~38.

32)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報北京市化學工業公司及輕工業部, 『請示確定朝鮮實習生結束事由』(1954.1), 北京市檔案館, 016-001-00009, pp.457~459.

빙해 매일 1시간씩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³³⁾ 연수생들의 학습 흥미를 이끌기 위해 연구소는 중국어 학습과 연수내용을 결합하는 수업 방식을 활용하여 화학명사·원소화합물 등의 중문 명칭을 배우도록 하였다. 연수생들은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연수생의 경우에는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연수생들도 적어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³⁴⁾

1953년 11월 「북·중 경제기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다수의 북한 연수생이 중국에 파견되었다. 1954년 7월 16일 중재위는 각급 기관에 “북한연수생 관련 업무를 정치임무”로 보고, “반드시 잘해야 하며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연수생들이 배치된 각 공장과 광산의 최고 책임자들이 북한연수생 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했으며, 국제주의정신의 원칙하에서 해당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기술을 북한연수생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³⁵⁾

특히 중재위는 7월 17일 북한연수생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였다. 첫째, “연수계획은 북한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연수생의 구체적인 수준, 그리고 해당 공장의 실질적인 생산기술 상황 등 이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우도록 한다. 들

33)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朝鮮同志一月來實習簡單情況」, 018-007-00004, pp.48~53.

34)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五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1953.6.4),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17~18, pp.27~28.

35) 中財委, 「關於朝鮮實習生工作應注意事項的通知(54財經工基技王字第282號)」(1954.7.16), 北京市檔案館, 017-001-00664, pp.574~575; 上海市檔案館, A38-2-352, pp.67~68.

째, 실습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셋째, 연수는 실제 조작성 위주로 하되 일정수준의 생산기술지식 및 이론학습을 병행시킨다. 넷째, 이론학습은 반드시 실제 현장실습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구체적 조건에 따라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도 기술관리 분야의 이론 지식 수업을 통해 완벽한 기술지도 간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⁶⁾

이러한 중재위의 지침에 따라 북경시는 1954년에 예정된 29명의 북한연수생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북경시 화학시제 공장 에서 3명의 연수생을 6개월 동안 연수시키며, 구체적으로 무기화학 공장에 1명, 증류공장에 1명, 나머지 1명은 주로 무기화학에 관해 연수시키면서 동시에 검사·검정 등의 기술에 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북경 악기공장은 11명의 연수생을 1년간 연수시키는데, 구체적으로는 페인트 공장에 1명을 배치하여 피아노·오르간·아코디언·4현악기 등의 도료작업을 배우게 하고, 목재공장에 2명을 배치해 목재의 선택과 처리를 연수시키며, 피아노 공장에 2명을 배치하여 각각 건반과 피아노 몸체의 제작과 튜닝기술을 습득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4현악기 공장에도 2명을, 활·머리·샤프트 등의 부품 제작 분야에 1명을, 악기 몸체 제작 분야에 각각 1명을, 바이올린·비올라 제작 분야에 1명을, 첼로·콘트라베이스 제작소에 1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오르간·아코디언 공장에도 3명을 배치해 악기 구조에 1명, 튜닝 분야에 1명, 오르간 리드 제작에 1명을 배치시켰다. 아울러 북 공장에

36) 中央人民政府財務院財政經濟委員會第一辦公廳通知, 「關於制定朝鮮實習生實習計劃及貫徹計劃有關幾個問題的通知(54財經工基技王字第285號)」(1954.7.17), 北京市檔案館, 016-001-00174, pp.562~564; 上海市檔案館, A38-2-352, pp.64~66.

도 1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예화악기(藝華樂器) 공장에서는 연수생 4명을 1년간 연수시키며, 금관악기에 2명을, 기계 제작 및 설치에 각 1명씩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북경시 유리공장은 10명의 연수생을 1년간 연수시키는데, 1명을 원자재 구매, 2명을 시제연소, 2명을 용해, 5명을 가공 분야에서 연수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북경시 감광지(感光紙) 공장은 연수생 1명을 받아 6개월간 연수할 것을 계획하였다.³⁷⁾ 1956년 7월에는 북경시 유리공장에 1명을, 북경시 에나멜공장에 1명을, 북경시 제약공장에서도 3명의 북한연수생을 받아들여 각각 1년 동안 연수를 시켰다.³⁸⁾

연수를 담당한 공장에서는 북한연수생을 위해 숙소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했고, 연수생들이 북경에 도착할 때에는 공장 관계자가 직접 기차역까지 마중하도록 하였다. 각 공장의 최고책임자는 연수생이 도착한 첫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북경시 관광을 하였으며 옷과 침구 등을 제공하였다. 식사는 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하였다.³⁹⁾

1954년부터 1956년까지 가장 많은 수의 북한연수생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1957년부터 그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다. 북경시의 경우, 1957년부터 1961년 사이의 북한연수생 관련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1962년 북경에서 연수를 받은 북한연수생은 총 14명이었다. 그들은 북경의 718공장(국영 제2무선 전기재 공장)에 13명이, 774공장(오디오 기기 회사)에서 1명이 연수를 받았다. 1963년에는 그들 중 718공장

37) 「朝鮮實習生實習專業項目分配計劃表」, 北京市檔案館, 016-001-00174, pp.570.

38) 中華人民共和國地方工業部, 「請準備接待朝鮮實習生的通知」, 017-001-00664, pp. 569~571.

39) 中華人民共和國輕工業部報外貿部, 「關於接待朝鮮實習生的情況簡報」(1956.9.10), 北京市檔案館, 017-001-0064, pp.586~590.

에 5명이, 774공장에 1명이 남아서 계속 연수를 받았으며, 그들도 1963년 8월 귀국하였다.⁴⁰⁾

북경시가 북한연수생을 받아들인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연수과정 중 안전 문제였다. 당시 북경 석경산(石景山) 철강공장에서 연수를 받던 북한연수생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노동경험이 적었다. 일부 연수생들은 철강이 단조되어 빠져나오는 곳에 다가가거나 제어를 부적절하게 작동시키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운전 중인 전동기 커넥터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돌고 있는 기계 옆에서 떠들기도 했다.⁴¹⁾ 이와 유사한 안전 문제는 북경시 화학시제 연구소에서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석경산 철강공장의 경우, 1년간의 연수 결과 22명이 4급 기사, 18명이 5급 기사, 6명이 6급 기사, 2명이 7급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산업기술 연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⁴²⁾

4. 북한연수생의 처우 문제

북한연수생에 대한 처우 문제는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북한연수생을 중시하거나 우대한다는 척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원조의 진정성을 반영하는 지

40) 『1960-1962年 北京市實習生情況』, 北京市檔案館, 102-001-00307, pp.587~589.

41) 中財委, 『關於石景山朝鮮實習生工作檢查報告(53)財經密字第184號』(1953.3.23),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8~9.

42) 당시 중국에서는 8급이 최고 등급의 기사자격이었다. 『重工業部1953年度朝鮮實習生工作總結報告(摘抄)』, 北京市檔案館, 018-005-00015, pp.2~7.

표라고 말할 수 있다.

1952년 11월 12일 중재위는 「제161호 결정서」를 통하여, 북한연수생들에 대한 처우 기준을 세웠다. 연수생들은 연수교육을 받을 공장에 도착한 후 의복과 일용품을 지급받았고, 1인당 하루에 1만 3천 위안의 경비를 지급받았다. 이 경비는 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연수생들의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일 담배 1갑과 차(茶) 250그램이 지급되었다. 또 영화 관람 2회, 관광 2회, 목욕과 이발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연수가 시작된 후에는 1인당 매일 생활비 253분(分)이 제공되었다.⁴³⁾

지역 단위로 계절에 따라 의복이 지급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일상복, 외투, 습옷이 한 벌씩 지급되었다. 각 공장 단위로 의료비·숙소비·수도세·전기세 등을 지급하였는데, 소요예산은 중앙정부 재정부에서 각 공장에 지급해 주었다.⁴⁴⁾ 이처럼 북한연수생이 중국에 도착한 뒤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국정부가 부담했으며, 이는 “북한 동지들의 학습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⁴⁵⁾

중국 당국은 체류비용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예컨대 북경시 화학시제 연구소는 중국인 노동자 50

43) 여기서 말하는 분은 그 당시의 월급계산단위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물을 계산단위로 환산해 위안화로 지불하는 월급 계산단위로서 1955년 7월에 폐지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경지역 1월급분 계산단위는 옛 위안화로 환산하면 약 2,200위안으로, 253분은 약 56만 위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陳明遠, 『知識份子與人民幣時代』, pp.62~71 참조.

44) 中財委秘字第161號通知, 「關於朝鮮來我國實習人員的招待費及待遇標準之規定」(1952. 11.13), 北京市檔案館, 018-005-00015, p.57.

45) 中國輕工業部向北京市企業公司轉發中財委, 「關於朝鮮友人來我國實習的通知」, 016-001-00009, pp.438~439.

여 명이 사용하던 규모의 공간을 북한연수생 16명의 숙소로 제공하였다. 연수생들이 도착한 후에는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연수생들이 외출할 때에는 별도로 인원을 지정하여 동반토록 하였다.⁴⁶⁾ 식단 또한 북한연수생들을 위해 북한음식 몇 가지를 언제나 별도로 준비하였으며,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은 밥을 제공하였다.⁴⁷⁾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북한연수생들에게 문화나 오락 활동을 제공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영화·경극·서커스 등을 관람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배구·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⁴⁸⁾ 이러한 배려를 통하여 연수생들은 중국 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북한연수생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는 같은 시기 소련에서 연수를 받은 북한연수생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나왔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연수 받는 북한연수생들은 공공의료 부문을 포함해서, 같은 등급의 중국인 기술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북한 정부는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연수생들의 왕복교통비만 부담하였지만, 소련에서는 북한연수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북한 측이 부담하게 하였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1인당 매월 100~150루블씩을 연수비용으로 소련 측에 지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외교부 동북아국은

46)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朝鮮同志一月來實習簡單情況』(1953.2.26),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4, pp.48~53.

47)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八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 018-007-00004, p.16, pp.30~33.

48)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朝鮮同志一月來實習簡單情況』, 018-007-00004, pp.48~53;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四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 018-007-00004, p.16, pp.21~22;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五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 018-007-00004, pp.17~18, 27~28; 北京市化學試劑研究所, 『八月份朝鮮同志學習情況報告』, 018-007-00004, p.16, pp.30~33.

북한연수생들에 대한 중국 측의 우대정책을 고려하여 소련의 북한연수생에 대한 제도의 수정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⁴⁹⁾

1954년 『중국의 대북 기술원조에 관한 공동조건』이 체결된 이후, 북·중 양국은 북한연수생 교육비 분담 문제를 확정하였다. 북한연수생의 왕복교통비, 중국에 도착한 뒤 연수기관에 배치되기 전까지 생긴 생활비 및 중국 내에서의 이동비용은 북한 측이 부담하고, 중국정부가 제공할 대북 무상 원조금에서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수생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의 월급 및 연수과정 중 발생한 모든 연수비용과 의료비는 일괄적으로 중국 측이 부담기로 하였다. 연수생의 식비·숙소 임대료·의료비·일상 생활용품·교통비·용돈 등은 연수생 개인이 중국 측에서 지불하는 월급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⁵⁰⁾ 이처럼 북한연수생은 중국 도착부터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국정부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정부 자신부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연수생들에 대한 대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우선 연수기관으로 배치되기 이전 매일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1956년 5월 중국 재정부가 규정한 ‘북한연수생 대우 규정’에 따르면, 북한연수생은 중국에 도착한 뒤 연수기관에 배치되기 전까지 1인당 매일 보조금 8각(角)을 지급받았

49) Fedorenko의 조사보고, 1953년 12월 31일, АБИРФ, ф.0102, оп.7, д.47, л.27, л.115~120; 『人民日報』(1953.11.24) 1판. 『朝鮮實習人員和中國專家條件的協定書』, 上海市檔案館, A38-2-352, pp.50~52. 이 밖에 중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간 중국의 대북무역액은 8,745만 달러이고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692만 달러이다. 중국의 대북무역흑자액 8,053만 달러도 1953년 무상으로 북한에게 기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沈覺人, 『當代中國對外貿易(上冊)』(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2), p.300 참조.

50) 外貿部(54)成二密字第170號函, 『關於中國給予朝鮮技術援助的共同條件』, 北京市檔案館, 141-001-00139, pp.2~5.

다.⁵¹⁾ 1952년에 규정된 보조금 기준은 하루에 1만 3천 원이었다. 이를 1955년 3월 단행된 화폐개혁 후의 중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1원 3각으로 1956년에 지급되었던 1일 보조금은 1952년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952년의 보조금 1만 3천 원은 1955년의 1원 6각 9분에 해당한다. 즉 1956년 1일 보조금 구매력은 1952년의 1/2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연수생들의 교통비 기준이다. 이전에는 북한연수생이 귀국할 경우 교통비를 중국 측이 부담하였다. 원칙적으로 목적지까지 일등 침대석 가격에 준하는 경비를 지급하였다. 만약 귀국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일등 침대석 표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침대석이나 일등 좌석도 모두 가능하였다.⁵²⁾ 대체로 연수생들은 지방의 연수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등석을 이용했고, 이동시간이 하루 이상 걸릴 경우에는 대부분 일등 침대석을 이용하였다.⁵³⁾ 당시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부장급(장관급에 해당) 이상만 일등 침대석이나 일등 좌석을 이용할 수 있었다. 1956년에 이르러 기차를 이용할 경우, 침대석이 아닌 일반 좌석을 이용한다는 기준으로 북한연수생의 교통비 대우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⁵⁴⁾

1954년 이전, 북한연수생들에 관한 모든 비용은 중국 중앙재정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중국정부는 가능한 특별대우를 최대한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1954년 이후 연수교육 비용은 중앙재정과

51) 財政部, 「關於朝鮮實習人員和在實習期間所用翻譯人員費用開支的規定」(1956.5.14), 北京市檔案館, 141-001-00139, pp.32~39.

52) 中財委第331號通知, 「關於來我國實習的朝鮮實習生回國手續及路費報銷頒發的通知」(1953.5.21), 北京市檔案館, 018-007-00003, pp.4~5.

53) 中財委秘字第161號通知, 「關於朝鮮來我國實習人員的招待費及待遇標準之規定」, p.57.

54) 財政部, 「關於朝鮮實習人員和在實習期間所用翻譯人員費用開支的規定」, pp.32~39.

대북원조 자금 두 부분에서 나누어 지출된 이래로 대북원조 자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북한이 통제하고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지출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연수생 월급과 의료비용 등 중국 측이 부담하는 부분은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1956년 연수생 대우규정은 엔지니어 65위안, 기술자 55위안, 기능공(실습공 포함) 45위안의 기준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⁵⁵⁾ 1956년의 중국노동자의 평균 월급 52.66위안에 비교해 보면, 북한연수생의 가장 낮은 직급인 기능공의 월급이 비공업부문 기업과 교육부문 중국인 노동자보다 높았다.⁵⁶⁾ 이 밖에 북한연수생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은 같은 급수의 중국기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액수가 지급되었다.⁵⁷⁾

5. 북한연수생 교육업무 기술의 기밀유지 문제

북한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공장 또는 연구소 기술의 기밀을 유지하는 문제는 북·중 양국의 경제기술협력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북한연수생들에게 어떤 기술을 공개할 것인가 혹은 어떤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공개한다면 일부만 공개하는가 아니면 전부 공개하는가 하는 것들 모두가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따라서 기술의

55) *ibid.*

56) 이와 관련해서는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勞動工資和職工保險福利卷』(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998), pp.482~484 참조.

57) 財政部、對外貿易部, 『關於朝鮮實習生病員處理辦法』(1955.3.22), 北京市檔案館, 017-001-00216, pp.1584~1587.

기밀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의 우호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위 북한연수생 교육 프로젝트의 최대 난제였던 것이다.

1955년은 북한연수생이 대규모로 귀국한 해였다. 귀국 연수생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기밀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연수생은 귀국 과정에서 연수받은 공장과 광산의 내부 자료를 비롯하여 생산 상황의 일지나 제품 생산 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반출을 기도하였다. 이 해 8월 중국 대외무역부는 「국가기밀 보호 규정」을 각 연수기관에 하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연수기관은 연수를 마친 북한연수생의 연수보고서·강의내용·필기내용 등을 심사하고, 내용 중의 생산 계획·생산 및 시행 결과 등의 국가기밀 등의 기록들을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며, 상급 주관 부처의 승인을 거친 이후에 대외무역부를 통해서만 그 자료들을 북한 측에 전달해 줄 수 있다. 연수기관은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비롯하여 강의와 필기내용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⁵⁸⁾ 오직 대외무역부를 통해서만 연수 관련 자료들이 북한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나아가 12월, 중국 기술 수입공사는 북경시의 북한연수생 자료 반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에서 “연수를 마친 북한연수생의 연수보고서·강의내용·필기내용을 연수생 자신이 본국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며, 연수생이 기술자료 도안을 요구할 경우 북한 측이 일단 중국 외교부에 신청하고, 관련 부처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가 다시 관련 부처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로 한다. 또한 연수생이 귀국 보따리를 쌀 때, 옛 신문·잡지·문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아무 글자도 없는 폐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관련 자료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였다.⁵⁹⁾ 북

58) 對外貿易部, 「關於朝鮮實習生工作結束階段的幾項工作的通知」(1955.8.15), 北京市檔案館, 017-001-00216, pp.1595~1596; 上海市檔案館, A43-1-37, p.57.

한연수생 프로젝트 초기에 중국정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북한의 이른바 ‘8월 중파사건’으로 인해 한때 냉각되었던 북·중 관계는 1957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 말 포즈난과 반소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은 아시아 혁명의 지도자로서 소련을 도와 동부유럽의 공산화로 인한 위기 해결에 협조하였다. 1957년 소련공산당 내에서 ‘반흐루시초프 정변’이 발생하자, 중국공산당은 흐루시초프의 당내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흐루시초프를 지지하였다. 몇 차례의 사건을 통해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소련공산당과 동등한 수준의 지도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⁶⁰⁾ 그리하여 마오쩌둥의 대북한 태도가 변하였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1957년 하반기 중국정부는 김일을 비롯한 북한 경제대표단을 초빙하고,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필요한 물자의 원조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1957년 11월 모스크바회의에서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북한에 주둔 중인 중국군대를 전부 철군시키겠다고 제안하였다. 1957년 들어서 점점 풀어진 북·중 관계도 북한연수생 사업의 기밀유출 방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이 해 7월 4일, 대외무역부는 1955년 8월 규정의 폐지를 선포하고 “이후 형제국가의 연수생

59) 中國技術進口公司送北京市第二地方工業局, 『轉送實習生資料應注意事項』(1955.12.15), 北京市檔案館, 017-001-00216, pp.1597~1598.

60) 이와 관련해서는, 沈志華, 『中蘇關係史綱(增訂版)』(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제2편 3, 4, 6장을 참조.

이 연수를 마치고 모국으로 귀국할 때 연수보고서·강의내용·필기내용은 연수기관과 광산의 책임자가 심사해 비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모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기술 관련 자료의 반출규정을 완화하였다.⁶¹⁾ 북한연수생이 귀국 시 연수기관 책임자의 승인이 있으면 연수보고서·강의내용·필기내용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부처의 심사와 외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술 관련 자료의 반출이 용이해졌다.

1960년 북한은 당시 중국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초음파 발생기의 제조 및 사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연수생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연수생을 받는 관련 기업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북한연수생이 연수 중 초음파 응용 및 파이프라인 반응 등의 신기술을 접촉할 때, 실습 중 이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없으면 먼저 소개하지 말고, 그렇다고 일부러 피하지도 마라. 만약 연수 중 상술한 기술을 알릴 필요가 있으면 소개해 줘라.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면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설명해주며, 미공개된 기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연수기관은 주관 부처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임의로 연수생에게 신기술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⁶²⁾

위 기술교육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61)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部, 『關於兄弟國家實習生的實習報告, 講義, 筆記攜帶回國的規定』(1957.7.4), 北京市檔案館, 017-001-00242, pp.431~433.

62) 國家科學技術委員會報國務院外辦, 陳毅, 聶榮臻副總理, 『請批示朝鮮聘請我國技術人員和派遣實習生事(科合武字 第432號)』, 002-012-00243, pp.2765~2766.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으며, 북한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의 경우 성실하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이 알지 못하는 신기술은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북·중상호동맹조약 체결 후 북·중 양국관계는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1963년 8월 개최된 연수생 관련 회의에서, 연수생 업무 최고책임자는 “현재 우리는 북한에 그 어떤 비밀도 없다. 북한 조선로동당은 뛰어나며, 동시에 막중한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형제들을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⁶³⁾

이러한 방침은 북경시 관계 부문의 기술보안을 소홀하게 만들어 1964년 3월 북경 718공장의 금속막 전기저항 원재료 금속분말 기술이 북한연수생에 의해 북한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718공장은 1962년 6월부터 북한연수생을 받기 시작하였고, 연수생은 연수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중국에 파견되었다. 연수생이 718공장에 도착한 뒤에야 구체적인 연수계획이 세워졌는데 북한연수생은 공장의 대자보를 통해 718공장이 얼마 전 금속막 전기저항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수차례 금속막 전기저항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연수를 요청하였다. 718공장 측은 난색을 표하였으나 북한 측의 태도는 집요하였다. 상급기관은 “718공장의 금속분말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라. 필요하다면 소련으로부터 공급된다고 설명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관련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문제는 북한연수생이 금속분말의 출처를 밝히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던 반면에, 718공장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지

63) 「張彥同志在實習生會議結束後各部門地方外辦座談會上的發言」(1963.8.19), 北京市檔案館, 102-001-00307, pp.555~570.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속분말 제조관련 기술의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3월 10일과 4월 2일 두 차례 북한연수생은 공장 생산 자료집 중 금속분말 관련 자료의 전문을 빌려 복사하였다. 4월 3일 북한연수생 팀장은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북한 측에 넘겼다. 이후 북한 측은 중국국방부 외사처에 북한무관의 금속막 전기저항 원자재 금속분말의 제조에 관한 연수를 요청하였다. 6월 상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최용건(崔庸健) 위원장의 방중 시 재차 중국 측에 같은 요구를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주은래(周恩來) 총리의 지시를 받아 북한 측의 연수 요구를 수용하였다. 북경시는 연수생 업무에 관한 최종 종결보고에서 사건이 “국가기밀을 유출해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의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극히 피동적인 처지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⁶⁴⁾ 당시는 중소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에서 중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얼마 남지 않은 형제국이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났던 일이었다.

1950년대 말부터 중소 간에 국제문제나 양국관계 속에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흐루시초프의 대중 핵무기원조 조약 폐기, 중소 고위 지도자 간의 심한 말다툼, 부크레스티회의에서 소련의 중공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소련정부가 사전 통고 없이 중국에 파견했던 전문가를 철수시킨 사건 등으로 인해서 중소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였다.⁶⁵⁾ 중소 갈등이 표면화되던 과정에서 북한 정부는 공개적 또는 내

64) 『北京市實習生工作中的幾個問題』, pp.571~586.

65) 이와 관련해서는 沈志華, 『中蘇關係史綱(1917~1991)』(北京: 新華出版社, 2007), pp.222~295 참조.

부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 소련정부의 비판 태도와는 달리 북한지도부는 중국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던 ‘대약진운동’과 ‘경제건설 총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이 거둔 성과를 중공 및 마오쩌둥의 ‘혁명적 지도력’의 결과로 평가하였다.

1961년 중국경제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북한지도부는 여전히 중국의 노선과 정책이 옳바르다고 인정했고,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다.⁶⁶⁾ 1960년 10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중소 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지도부는 중국을 지지하였다. 선언문의 초안 토론을 위한 예비회의 및 정식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베트남과 알바니아 및 일본공산당과 같이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소련의 입장을 그 나름대로 비판하였다.⁶⁷⁾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연수생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기술기밀 유지정책이 점차 완화되었던 것인데, 이는 북·중 양국의 관계가 한층 밀접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기밀 유지’정책에 입각하여, “주동적이지는 않되, 거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로 먼저 소개하지 않으며 다만 북한이 관련기술을 알고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방침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기술에 대한 보안유지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보안 유지가 중소 분쟁 등의 사례

66) 『人民日報』(1960.1.25) 6판; 中國外交部檔案館, 106-00577-04, pp.60~63.

67) 嚴明復, 『回憶兩次莫斯科會議和胡喬木』, 『當代中國史研究』, 1997年第3期, pp.16~19; 楊尙昆, 『楊尙昆日記(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1), p.562, 568, pp.573~576, 598~599, 616~617.

에서처럼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나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기밀유지 원칙’도 기꺼이 유보하는 유연성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195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 북경을 무대로 시행되었던 북한연수생 연수 사업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정부는 북한연수생 사업에서 연수 관련 내용은 물론 연수생들의 일상생활까지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연수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북한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주었으나, 핵심기술 보안유지 문제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는 범위 안에서 보안을 유지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록 중국 전국 39개 도시를 무대로 시행되었던 북한연수생의 현황을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북경시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에 대한 역사학적 정리를 통하여 1950~1960년대 중국에서 시행된 북한연수생 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시행 초기인 1950년대에는 연수생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고, 1960년대 연수내용은 중국의 신기술 습득을 위주로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연수생 사업은 북·중 간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당시 북·중 관계의 발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연수생 프로젝트는 ‘항미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으나, 북·중 간의 갈등관계가 표면화되면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북한연수생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연수생의 중국연수를 단순한 기술연수로 보지 않고, 북·중 간의 ‘실수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북·중 간의 이데올로기적 일체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북한의 중국연수생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정부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연수생에게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였다. 신기술 보안문제에서도 비교적 북한에 공개하는 입장에서 임하였다. 반면에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연수생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특별대우 및 신기술 공개는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사실상 북한연수생 사업의 실시 과정에서는 북·중 간의 ‘비정상적인 국가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당시 북·중 관계는 ‘국가이익 원칙’에 기초한 현대적 국가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을 따르는 ‘당 대 당의 관계’에 입각하고 있었다. 양국 간의 모든 왕래 관계는 이데올로기의 통일성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연수생 사업이 북·중 간의 정치성이 일치하였을 때에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반면에 상호 정치인식의 차이가 커졌을 때에는 바로 중단된 이유였던 것이다.

■ 접수: 1월 10일 / 수정: 3월 15일 / 채택: 3월 30일

참고문헌

中國外交部檔案館

106-00577-04.

204-00003-01.

北京市檔案館

002-012-00243.

016-001-00009.

016-001-00174.

017-001-00216.

017-001-00242.

017-001-00664.

018-005-00015.

018-007-00003.

018-007-00004.

022-010-00403.

102-001-00307.

141-001-00139.

上海市檔案館

A-38-2-352.

A-43-1-37.

B163-2-66.

B163-2-1033.

B112-5-132.

러시아연방대외정책당안관

АВНРФ, ф.0102, оп.7, д.47, л.27, л.115~120.

『人民日報』.

『로동신문』.

- 石林 主編, 『當代中國的對外經濟合作』(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沈志華, 『中蘇關係史綱(1917~1991)』(北京: 新華出版社, 2007).
- _____, 『中蘇關係史綱(增訂版)』(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 楊尙昆, 『楊尙昆日記(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1).
- 嚴明復, “回憶兩次莫斯科會議和胡喬木”, 『當代中國史研究』, 1997年第3期, pp.16~19.
-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998).
- _____,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勞動工資和職工保險福利卷)』(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998).
- 陳明遠, 『知識份子與人民幣時代』(上海: 文匯出版社, 2006).
- 沈覺人, 『當代中國對外貿易(上冊)』(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2).

The Study of North Korean Interns in Beijing during 1950s and 1960s

Dong, Jie (Ph.D Candidate, History Department, Peking University)

From 1950, Beijing became one of the 39 cities in China where the North Korean workers were accepted and trained as interns. In this project of the North Korean interns, the local government of Beijing followed every instruc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nsidered the whole program as a political task. It upheld the spirit of internationalism and provided these interns with care and convenience in every way, from the technical study to the daily entertai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 of Beijing fell into a diplomatically passive position due to the leaking of new techniques, it placed priority on politics and generously made them available to North Korea for fear of damaging the two countries' relations. The project of the North Korean interns came out of the two countries' agreement on the political objectives, and ended due to the deviation of the political ideologies. As an epitome of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project of the North Korean interns shows the influence the political relations has exerted over the economic sphere, and also reflects the structural defect of the two countries' relations.

Keywords: North Korea, China, Interns, Policy, Sino-DPRK Relations